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백충기 수석연구위원(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원(kmj9612@bnkfg.com)

2017년 상반기중 동남권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73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기계(Δ 1.2%)를 제외한 조선(45.6%), 자동차(7.4%), 석유화학(13.4%), 철강(13.8%) 등 대부분의 주력업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하반기중 동남권 수출은 글로벌 경기개선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도 수출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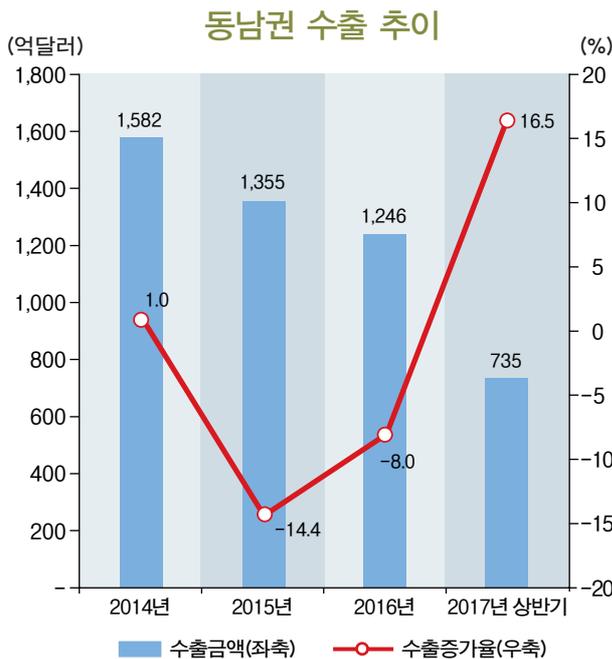
다만 상반기와 같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출호조를 이끌었던 조선산업의 인도물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효과 및 철강산업·석유화학산업의 단가인상 효과 등이 상당부분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정치적 리스크도 동남권 수출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남권 수출, 2017년들어 증가세로 전환

2017년 상반기중 동남권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73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전국(15.8%)보다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도 벗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33.7%), 울산(6.3%), 부산(5.3%)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5년중 최고 실적(318.8억달러)을 기록하면서 국내 16개 시도중 수출순위가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다.

울산은 상반기중 342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면서 동남권내 최대 수출지역의 위상을 유지하였으며 수출순위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3위를 차지하였다. 부산은 74억달러의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지난해 보다 한 단계 높은 10위 수출지역으로 올라섰다.



부산·울산·경남 수출순위 변화¹⁾²⁾

순위	2016년	→	2017년 상반기
울산	3위 (13.1)	→	3위 (12.2)
경남	5위 (9.2)	→	4위 (11.4)
부산	11위 (2.8)	→	10위 (2.7)

주 : 1) 국내 16개 시도 기준 순위
 2) ()는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업종별로는 조선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중 219억달러를 수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45.6%, 반기기준)을 기록하였다. 동남권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0.5%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29.8%까지 상승하였다.

자동차산업은 7.4% 증가한 132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이 소폭 증가(0.5%)하는데 그쳤으나 완성차가 높은 증가율(10.1%)을 시현하였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산업¹⁾ 및 철강산업도 13%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 3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반면 기계산업의 수출은 67억달러에 그치며 타 주력산업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세(△1.2%)를 보였다.

동남권 주력산업의 수출 추이

(백만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조선	36,560	35,541	28,710	21,878
	(7.9)	(△2.8)	(△19.2)	(45.6)
자동차	27,598	27,557	24,466	13,232
	(1.3)	(△0.1)	(△11.2)	(7.4)
기계	13,166	12,884	13,325	6,656
	(1.3)	(△2.1)	(3.4)	(△1.2)
석유화학	13,066	7,838	7,848	4,224
	(△6.8)	(△40.0)	(0.1)	(13.4)
철강	5,357	4,471	4,006	2,242
	(△6.4)	(△16.5)	(△10.4)	(13.8)

주 : 1) MTI 3단위 기준으로 수출금액이 10억달러 이상인 27개 제품중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18개 품목(동남권 총수출액의 65.7%)을 분석. 구체적으로 조선(746), 자동차(741,742), 기계(711,713,721,723,725,751,790), 석유화학(211,212,213,214,219), 철강(613,614,617)으로 분류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석유정제업의 경우 수출금액은 높으나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에서 본 분석대상에서 제외

조선산업 수출, 인도물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큰 폭 증가

조선산업 수출은 일반적으로 마셜제도, 라이베리아, 파나마, 버뮤다 등 편의치적국에 집중되어 왔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호주, 영국 등 해양플랜트 발주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산업 수출호조는 업황 회복과는 연관성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발주처 사정으로 인도가 지연되었던 해양플랜트 물량이 집중인도 되는 등 일시적 효과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출 급등세를 보였던 호주로는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 영국으로는 고정식 해양플랜트 등 수십억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가 상반기중 인도되었는데 두 계약 모두 2012년 수주된 인도 지연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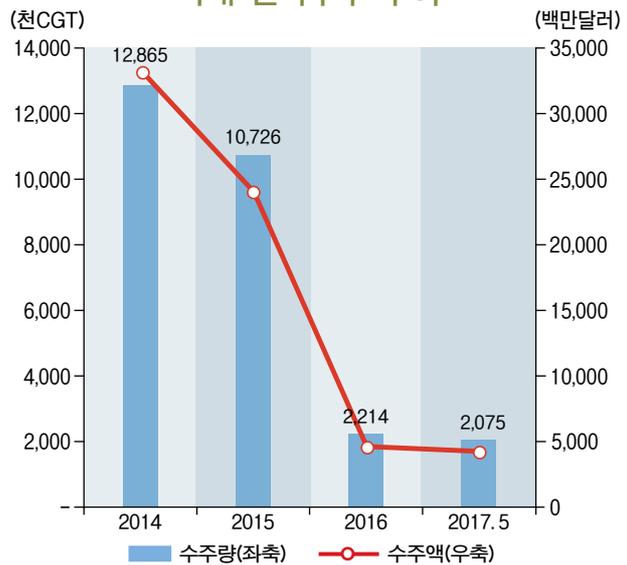
특히 선박건조는 수주 이후 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금년 상반기중 수출확대는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수주량 수준³⁾이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의 경우에는 유례없는 수주절벽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동남권 조선산업 수출 현황

		(백만달러, %)	
상위 5대 수출국	수출액	증가율	
1위	호주	7,612	(2,757,930.1)
2위	마셜제도	3,359	(20.9)
3위	영국	3,212	(1,172.4)
4위	노르웨이	1,014	(△54.1)
5위	라이베리아	869	(△23.2)

주 : 2017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내 선박수주 추이



자료 : Clarksons

2) 금년 6월 수출통계에 잡혔던 해양플랜트 5기는 2012~13년 수주했던 물량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도가 지연되다가 최근 수출된 것으로 파악

3)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5년간(2010~14년) 평균 수주량은 13,381천CGT에 달함

자동차산업 수출, 완성차 단가효과에 힘입어 증가

자동차산업 수출은 완성차의 경우 호주(△1.7%), 사우디아라비아(△18.8%)로는 부진했으나 미국(0.8%), 캐나다(17.8%), 영국(46.6%)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우 자동차 내수시장이 큰 폭으로 위축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단가의 국내 대형차, 친환경차, 스포츠다목적차(SUV)가 수출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영국으로의 높은 수출증가율은 르노삼성의 QM6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차부품 수출의 경우 미국(5.8%), 멕시코(32.0%), 인도(10.2%) 등 대부분의 주력 대상국으로는 늘어났으나 대(對)중국 수출은 크게 감소(△36.7%)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으로의 수출급감은 현대차 중국법인의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42.4% 감소한 30만대 수준에 그치면서 현지공장으로 납품하는 조립용 부품 수출부진 등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자동차산업 수출 현황

(완성차)				(자동차부품)			
		(백만달러, %)				(백만달러, %)	
상위 5대 수출국	수출액	증가율		상위 5대 수출국	수출액	증가율	
1위	미국	4,265	(0.8)	1위	미국	746	(5.8)
2위	캐나다	846	(17.8)	2위	중국	481	(△36.7)
3위	호주	590	(△1.7)	3위	멕시코	279	(32.0)
4위	사우디	483	(△18.8)	4위	인도	254	(10.2)
5위	영국	243	(46.6)	5위	UAE	201	(22.4)

주 : 2017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7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2017년 상반기중 미국내 자동차 총 판매대수는 845만 2천대로 8년만에 처음으로 감소(-2.1%)하였음. 미국으로의 국내 완성차 수출실적(판매대수 기준)도 지난해 상반기 520,269대에서 금년 상반기 450,278대로 감소
 5)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완성차 1대당 수출가격이 지난해 비해 6.0% 증가(전국기준)

기계산업 수출은 중국으로의 기계요소, UAE로의 공기조절기·냉난방기 부진으로 감소

기계산업 수출의 경우 미국(11.3%), 베트남(37.6%)으로는 호조세를 보였으나 중국(△3.5%), 일본(△2.2%), UAE(△19.7%) 등으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의 수출부진은 최대 수출품목인 밸브, 베어링, 전동축 및 기어 등 기계요소가 감소(△8.9%)한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인프라투자 확대, 굴삭기 교체주기 도래⁶⁾ 등으로 건설광산기계는 높은 수출실적(191.4% 증가)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위 수출대상국인 UAE로의 수출 급감은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21.6%), 원동기 및 펌프(△40.2%) 수출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동남권 기계산업 수출 현황

(백만달러, %)

상위 5대 수출국		국가별 주요 수출품목					
		1위		2위		3위	
미국	1,344 (11.3)	석유 및 화학기계	302 (22.2)	원동기 및 펌프	277 (19.5)	건설광산 기계	240 (0.5)
중국	1,027 (△3.5)	기계요소	289 (△8.9)	원동기 및 펌프	276 (13.4)	건설광산 기계	132 (191.4)
베트남	302 (37.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9 (65.2)	석유 및 화학기계	59 (23.2)	기타 기계류	54 (222.3)
일본	301 (△2.2)	기계요소	109 (1.8)	원동기 및 펌프	68 (△9.8)	건설광산 기계	42 (24.4)
UAE	295 (△19.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55 (△21.6)	원동기 및 펌프	73 (△40.2)	석유 및 화학기계	41 (1,075.0)

주 : 2017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2006~2007년중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바 있는 굴삭기는 사용연한(10년)이 도래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

석유화학산업 수출은 중국으로의 기초유분, 인도로의 합섬원료 호조로 증가

석유화학산업 수출의 경우 중국(7.9%), 인도(41.4%), 터키(9.2%), 일본(60.0%) 등 미국(△0.9%)을 제외한 주력 수출대상국 대부분이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동남권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⁷⁾으로의 수출호조는 기초유분이 37.1%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이는 유가상승 효과와 함께 기초유분중 에틸렌의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석탄을 기반으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중국이 최근 석탄가격 급등에 따라 공급을 축소하면서 동남권 수출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도의 경우 Zara, H&M 등 글로벌 패션업체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는 등 섬유산업을 적극 육성⁸⁾하면서 섬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합섬원료(123.3%)의 수출이 늘어났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흔히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합성수지(16.3%)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수출 현황

(백만달러, %)

상위 5대 수출국		국가별 주요 수출품목					
		1위		2위		3위	
중국	1,711 (7.9)	중간원료	550 (1.0)	합성수지	516 (△3.9)	기초유분	456 (37.1)
인도	262 (41.4)	합섬원료	112 (123.3)	합성수지	84 (16.3)	기타제품	48 (△8.4)
터키	246 (9.2)	합섬원료	133 (14.9)	합성수지	89 (1.4)	기타제품	23 (11.8)
일본	240 (60.0)	기초유분	96 (178.6)	합성수지	77 (27.9)	기타제품	28 (3.7)
미국	233 (△0.9)	기초유분	105 (△22.4)	합성수지	64 (26.5)	기타제품	52 (60.0)

주 : 2017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7) 중국은 동남권의 석유화학 수출중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대상국

8) 인도의 섬유산업은 농업 다음의 최대 규모임. 인도 전체 GDP의 4%, 총수출의 13%를 차지. 최근 섬유산업을 중요한 미래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더욱 성장시켜 나가고 있음

철강산업 수출, 철광석 가격상승 효과로 증가

철강산업 수출의 경우 미국(21.2%), 일본(35.2%), 중국(2.0%), 태국(18.6%), 멕시코(41.0%) 등 상위 5대 수출대상국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중국을 제외하면 두 자리수에 해당하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는데 이는 철강제품의 주원료인 철광석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톤당 평균 50.9달러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73.5달러로 4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2014년 이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철강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급 감소로 인해 철강판(80.7%)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남권 철강산업 수출 현황

(백만달러, %)

상위 5대 수출국		국가별 주요 수출품목					
		1위		2위		3위	
미국	293 (21.2)	철강판	116 (80.7)	철강관 및 철강선	96 (Δ 2.3)	주단조품	81 (2.2)
일본	245 (35.2)	철강관 및 철강선	117 (24.9)	주단조품	113 (45.6)	철강판	15 (50.5)
중국	178 (2.0)	철강관 및 철강선	75 (43.7)	철강판	57 (Δ 22.9)	주단조품	45 (Δ 4.9)
태국	123 (18.6)	철강판	84 (22.9)	철강관 및 철강선	32 (21.6)	주단조품	7 (Δ 23.4)
멕시코	117 (41.0)	철강판	82 (30.5)	철강관 및 철강선	23 (69.2)	주단조품	12 (84.1)

주 : 2017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하반기 동남권 수출, 증가세는 이어지겠으나 상승폭은 둔화

금년 하반기중 동남권 수출은 글로벌 경기개선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도 수출 회복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반기와 같은 높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예상은 동남권 수출 호조를 이끌었던 조선산업의 인도물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효과 및 철강산업·석유화학산업의 단가효과 등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는데 기반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해양플랜트 발주사의 재정악화로 하반기 예정된 선박인도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등 일부 전망기관에서도 하반기 조선산업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약 40%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철강산업은 호주의 자연재해, 중국의 구조조정 등으로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가효과⁹⁾가 상당부분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산업도 상반기와 같은 유가상승(전년동기대비 25.7% 상승)에 따른 단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은 원유가격이 2018년까지 50달러(WTI 기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도 동남권 수출 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미국은 동남권 수출의 23%를 차지(2017년 상반기 기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라는 점에서 G2의 정치적 리스크는 지역수출의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9) 철광석 가격은 금년 3월 톤당 87.9달러까지 상승했으나 8월에는 73.6달러(8.23일 기준)까지 하락

[참고] 2017년 상반기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 현황

(%)

업종별 품목		수출국				
		1위	2위	3위	4위	5위
조선		호주 (34.8)	마셜제도 (15.4)	영국 (14.7)	노르웨이 (4.6)	라이베리아 (4.0)
자동차	완성차	미국 (43.4)	캐나다 (8.6)	호주 (6.0)	사우디 (4.9)	영국 (2.5)
	자동차부품	미국 (22.0)	중국 (14.2)	멕시코 (8.2)	인도 (7.5)	UAE (5.9)
기계	원동기 및 펌프	미국 (19.0)	중국 (18.9)	브라질 (7.7)	UAE (5.0)	일본 (4.7)
	건설광산 기계	미국 (18.5)	벨기에 (13.2)	중국 (10.2)	인도 (5.6)	러시아 (5.5)
	공기조절기 및냉난방기	미국 (17.8)	UAE (14.0)	베트남 (6.2)	네덜란드 (5.7)	이집트 (4.6)
	기계요소	중국 (27.9)	미국 (16.2)	일본 (10.6)	독일 (5.6)	멕시코 (4.8)
	섬유 및 화학기계	미국 (44.0)	베트남 (8.7)	UAE (6.0)	중국 (4.7)	쿠웨이트 (3.6)
	금속 공작기계	중국 (22.0)	미국 (21.9)	독일 (13.0)	이탈리아 (7.9)	멕시코 (6.6)
	기타기계류	중국 (25.5)	홍콩 (11.1)	베트남 (10.9)	미국 (6.9)	멕시코 (6.4)
석유 화학	합성수지	중국 (31.9)	베트남 (10.5)	홍콩 (7.0)	터키 (5.5)	인도 (5.2)
	합섬원료	터키 (18.6)	중국 (17.3)	인도 (15.7)	스페인 (10.6)	리투아니아 (6.4)
	기초유분	중국 (61.4)	미국 (14.2)	일본 (12.9)	대만 (4.8)	인도 (2.0)
	중간원료	중국 (87.1)	대만 (8.0)	일본 (3.3)	인도 (0.5)	태국 (0.3)
	기타석유 화학제품	중국 (12.6)	미국 (10.1)	인도 (9.3)	일본 (5.4)	태국 (4.9)
철강	철강관 및 철강선	일본 (22.8)	미국 (18.6)	중국 (14.7)	UAE (9.8)	태국 (6.2)
	철강판	미국 (14.1)	태국 (10.3)	멕시코 (10.0)	인도 (8.5)	중국 (7.0)
	주단조품	일본 (18.9)	미국 (13.6)	중국 (7.6)	사우디 (6.6)	UAE (6.0)

주 : 2017년 상반기 수출액 기준, ()내는 해당품목의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2017.8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수출입은행, “2017년도 상반기 조선해운 시황 및 하반기 전망,” 2017.6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_____, “2017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2017.6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7.7
 _____, “경제전망보고서,” 2017.7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Bloomberg, www.bloomberg.com
 EIA, www.eia.gov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4
 WTO,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7,” 2017.7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언제나 BNK 어디서나 BNK

내 결혼을 BNK가 함께 합니다
 취업을 하고 첫 급여통장을 만들었을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내 집과 자동차를 계약하고
 해외여행 가기전 환전을 할 때도,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릴 때도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때도
 언제부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BNK-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입니다.



BNK BNK금융지주

제2017-08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성세환
 편집인 정민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7년 8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